폭설 쏟아진 영광·함평 제설작업 안간힘

영광군, 공직자·주민 등 700명 시가지 눈치우기

함평군, 장비 108대·125명 투입 53개 노선 작업

한파 속에 폭설이 쏟아진 영광·함평 지역에서는 군 공직자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제설 작업에 총력전을 펼쳤다.

영광군은 최근 폭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직자와 군민 700여명이 참여해 시가지 눈 치우기 작업을 실시했다.

영광은 타 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폭설 때마다 차도·인도에 쌓인 눈과 결빙으로 인해 낙상사고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이번 제설작업은 주민 일상생활 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됐다.

눈 치우기 작업에 함께 참여한 김준성 영광군수는 "올 겨울 최강 한파와 대설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군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참여해준 군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지난 6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트랙터 등 제설장비 380여대와 염화칼슘 950여t, 액상제 7만9천ℓ 등을 투입해 도로 28개 노선(167㎞)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영광군은 기상특보 발효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기상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직자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상황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7일 김준성 군수 주재로 대설·한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중점 점검 사항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기상 현황·전망, 제설 활동·결빙 대처 상황, 시설물 안전사고 방지·한파 대처, 취약계층 관리상황 등을 공유하고 중점 점검 사항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김 군수는 ▲취약구조물 안전 점검 ▲한파 취약계층 안부전화·방문 안전관리 강화 ▲결빙 우려 지역 점검·신속한 제설작업 ▲농·축·수산 시설 피해 예방 지도 ▲긴급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활용 재난상황 신속 안내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인명 피해 제로화 등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함평군도 장비 108대를 투입해 주요 시가지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쏟았다.

군은 최근 그레이더 등 장비 108대와 공무원 등 125명을 동원해 관내 53개 노선(97개 구간) 252.1㎞에 대한 제설 작업을 실시했다.

지역 자율방재단과 연계해 9개 읍·면 주요 시가지와 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제설작업을 벌였다.

특히 사고가 잦은 국도 24호선과 국도 진·출입 구간, 주요 국도·지방도·농어촌도로에는 수시로 제설제를 뿌리며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신재현 기자

영광·함평지역에서 최근 폭설로 인한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 공직자와 주민들이 힘을 합쳐 제설 작업에 총력전을 펼쳤다. 〈영광군·함평군 제공〉

함평지역 새해 기부·기탁 행렬 '훈훈'

동건종합건설 1억·준영개발 1천만원 등 쾌척

새해들어 함평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기탁이 줄을 잇고 있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동건종합건설은 최근 지역 출산장려금 용도로 써달라며 함평군에 1억원을 지정 기탁했다. 〈사진〉

함평군 손불면 출신 출향인인 이흥재 ㈜동건종합건설 회장은 대전 등지에서 임대주택 건설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손불면 귀흥장학재단에 5억원을 출연해 손불초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준영개발이 1천만원, 함평농공단지협의회가 700만원, 함평군양파생산자협회가 350만원 상당의 양파(5kg) 500개를 함평군 희망 2021 나눔캠페인에 기탁했다.

특히 준영개발은 전남 65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함평군 저소득 주민 지원에 해당 성금을 지정 기탁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함평군인재양성기금에도 새해부터 기부 소식이 전해졌다.

함평군문화관광해설사협회는 이달 초 인재양성기금에 100만원을 쾌척했다. 유니세프함평군후원회도 함평군인재양성기금에 200만원의 성금을 기부했다. 유니세프함평군후원회는 2018년부터 매년 200만원 씩 함평군인재양성기금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해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정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기탁 용도에 맞게 기부금품을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김준성 영광군수, 최고령 106세 어르신 방문

꽃바구니 등 전달 무병장수 기원

김준성 영광군수는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최근 최은영 영광군의회 의장과 함께 최고령 장수 어르신을 방문하고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사진〉

영광군의 최고령 장수 어르신은 군서면에 거주하는 정판임 할머니로 올해 나이 106세다.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녀 오복남씨는 74세의 나이에도 지극한 효심으로 어머니를 보살피고 있으며 2018년에는 경로효친 사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행남효행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판임 할머니는 반가운 얼굴로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방문해 준 데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날 김 군수는 어르신의 안부를 챙기면서 이불세트와 꽃바구니를 전달하고 "정판임 할머니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함평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집중 육성

郡, 2023년까지 12억 투입 종축 개량·전산 DB 구축

함평군은 10일 "우량 송아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함평천지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함평천지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한우 개량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전남도가 도내 각 시·군을 통해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일반 한우와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 각 지역에서 친자 확인과 선발 기준 등을 심사해 품질이 우수한 송아지를 대상으로 '으뜸한우' 브랜드 명칭을 부여하고 집중 육성·관리한다.

함평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매년 4억원씩 총 12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비를 통해 우량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개체별로 관리하는 등 브랜드화 사업을 실시하고 함평가축시장 내 전자경매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한우농가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사업 시행기관인 함평축협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전담인력을 구축할 방침이다.

종축 개량, 전산 DB 구축, 유전자 검사, 정액 공급, 초음파진단기 확보 등 송아지 브랜드화에 필요한 예산도 적극 지원하고 사업 참여 농가에는 귀표 부착, 백신 공급, 개체 관리 현황판 보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일반 송아지보다 수십만원 높게 낙찰될 정도로 브랜드 송아지의 우수한 품질과 시장 수요는 이미 입증됐다"며 "지역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함평천지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영광군 "고추 육묘 신청하세요"

오늘부터 20만주 선착순 접수

영광군은 10일 "11일부터 2021년 고추 재배농가 육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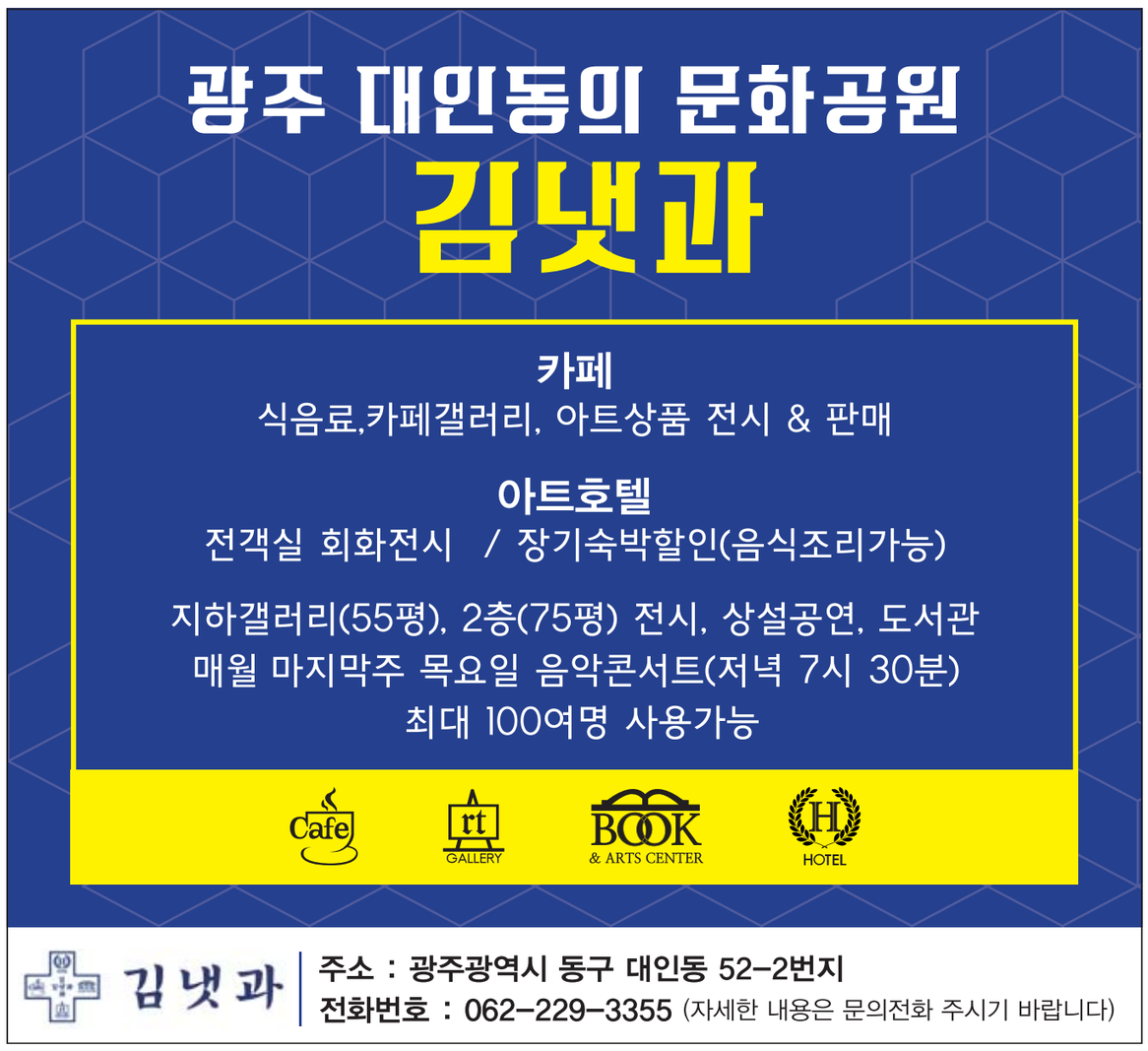
군은 20만주 내에서 선착순 신청받을 계획이며 농가별 40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직접 방문해 육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소농·고령농가 위주로 가능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고추 육묘 관리·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영광군,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선제검사

영광군은 10일 "코로나19 사전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관내 감염 취약시설(노인, 장애인, 정신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별 선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감염취약시설 48개소 1천130명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3차 검사를 진행 중이다. 또 급성기병원(종합병원, 기독병원) 500명과 요양병원(공립요양병원, 기독신하병원) 213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전원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대중교통(택시, 버스) 종사자 214명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에게는 종사자의 타 시·도 방문 제한 등 출·퇴근 관리와 의심환자·접촉대상자 집중 모니터링, 감염병 예방 교육, 하루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영광=김동규 기자